

석유제품, 울산단지가 더 비싸다!

휘발유 가격 전국 3-4위 ... 유통가격·마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국 최대 규모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 있는 울산의 석유제품 가격이 오히려 평균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9월29일 석유공사의 석유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울산지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06.07원으로 서울(1757.42원), 제주(1712.46원), 강원(1706.19원)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7일에는 서울, 제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3-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울산의 운전자들은 “석유공장이 코앞에 있어 운송비용이 덜 들 텐데 주유소 기름 값이 비싼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구 주민들도 “석유화학단지가 있어서 울산의 가격이 쌀 줄 알았는데 피서철과 추석 때 다른 지역에 가보니 그게 아니어서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에 A 정유기업 관계자는 “공장에서 멀수록 물류비가 올라가는데 물류비가 적게 들면 주유소 공급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며 “그러나 공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각 주유소와의 계약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B 정유기업 관계자는 “보통 대리점을 거쳐 주유소에 판매하는데 대리점으로 공급되는 석유 가격은 물류비와 상관없이 전국이 똑같다”며 “공장에서 가깝다고 유리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정유 관계자는 “각 주유소의 판매가격에는 지가, 임대료, 사은품, 인건비, 물가 등이 반영된다”며 “울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과 물가, 최저 실업률 등의 영향으로 비싸졌을 것”이라고 울산의 석유제품 가격이 비싼 이유를 추정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울산은 물가와 지가가 높기도 하지만 자동차 소통량에 비해 주유소가 적은 편(291개)이어서 주유소들의 경쟁이 심하지 않은 점도 가격결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주유소가 많은 지역은 기름이 싼 편”이라며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면 주유소 운영이 열악해지고 불량석유 판매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소비자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1년 내내 심한 경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은 바뀐다”며 “울산도 2010년 1/4분기에는 셀프주유소 간 경쟁이 붙어서인지 석유 가격이 전국 13위로 낮은 편이었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석유제품 가격결정 요인을 명확히 설명하는 연구결과가 없고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도 없다”며 “워낙 조건이 다양하고 정유기업들이 영업 비밀 유지를 이유로 유통과정과 마진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29>